

위탁아동의 애착유형과 가족지각에 관한 연구*

김 윤 미	이 경 숙	박 진 아 ¹⁾	이 권 희	진 미 경
세원영유아아동 상담센터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한신아동부모 상담연구소	경기북부 가정위탁지원센터	남서울대학교 아동복지학과

본 연구는 위탁아동과 일반아동의 애착유형과 가족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비교하고 위탁아동의 성별, 위탁유형, 위탁기간, 친부모와의 만남여부에 따른 애착유형과 가족에 대한 지각의 차이, 위탁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른 가족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가정위탁을 받고 있는 만 5-8세 위탁아동 30명과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아동 30명으로 총 60명이었다. 위탁아동의 애착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Green, Stanley와 Goldwyn(2003)이 개발한 맨체스터 아동 애착 이야기 검사(The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Task)와 가족에 대한 지각을 측정하기 위해 Fury(1996)에 의해 고안된 가족그림 척도를 이용한 가족그림검사를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위탁아동과 일반아동의 애착유형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 위탁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안정애착이 적고 불안정애착을 더 많이 보였다. 위탁아동의 성별, 위탁유형, 위탁기간, 친부모와의 만남여부에 따른 애착유형을 비교한 결과 안정애착과 불안정애착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위탁아동과 일반아동의 가족지각을 비교한 결과 위탁아동이 일반아동보다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더 많이 보였다. 위탁아동의 성별, 위탁유형, 위탁기간, 친부모만남여부에 따른 가족지각을 비교한 결과 남아가 여아에 비해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더 많이 보였고, 위탁기간이 짧은 아동이 오래된 아동보다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더 많이 보였다. 위탁유형과 친부모만남 여부에 따른 가족지각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위탁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른 가족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안정애착유형의 위탁아동이 가족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을 더 많이 보였고, 불안정애착유형의 위탁아동은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을 더 많이 보였다.

주요어 : 가정위탁, 위탁아동, 애착, 애착유형, 가족지각

* 본 논문은 김윤미의 2008년도 한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1) 교신저자 : 박진아 (E-mail : pjinah1230@hanmail.net)

I. 서론

아동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부모, 형제와 함께 성장·발달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며, 가족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완전하고 건강한 인격체를 가진 사회인으로 성장한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변화와 가치관의 변화, 경제적위기로 인해 부모의 사망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이혼, 가출, 가정불화, 미혼모문제 등의 다양한 사회문제로 가족해체 및 결손가정이 증가하면서 매년 요보호아동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로서 입양, 가정위탁 및 시설보호 등을 제공하고 있다(최중렬, 2005).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요보호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로서 시설보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1999년에 가정위탁제도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2003년에는 16개 광역시, 도에 17개의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해오는 등의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는 위탁아동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6). 가정위탁은 아동이 자신의 가정에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을 받을 수 없을 때 다른 가정에서 일정기간동안 아동을 보호·양육하며 아동과 가족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종합적인 가정지원서비스로서(한국복지재단, 2001) 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하게 하는 것과 친가정으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여 가족해체를 방지한다는 점에서 다른 보호서비스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가정위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변인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왔는데, 국

외 연구로는 친인척가정위탁과 일반가정위탁의 위탁부모의 연령, 건강, 교육수준, 경제적 능력, 주택소유의 유무,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등 위탁유형에 따른 양육환경(Gleeson, 1996; Gebel, 1996; Berrick, Barth, & Needell, 1994; LeProhn, 1994)과 양육태도(Gebel, 1996; Risley-Curtis, Combs-Orme, Chernoff, & Heisler, 1996; LeProhn, 1994; Ingram, 1996)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마찬가지로 국내 연구에서도 가정위탁보호사업의 현황과 제도의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이기정, 1998; 허남순, 2000; 백순미, 2002), 가정위탁의 양육환경에 대한 연구(이송이, 1999), 위탁부모의 위탁에 대한 인식이나 만족도, 서비스 욕구에 대한 연구(김지영, 2001; 나승혜, 2001; 박희천, 2005) 등이 보고 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주로 가정위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의 외부적 환경요인이나 가정위탁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환경요인, 그리고 위탁을 하는 위탁부모의 인구학적 요인 등과 같은 변인들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위탁아동의 정서적·행동적 문제(Pilowsky, 1995; Mcauley, 1996)와 이에 영향을 주는 위험요인들을 탐색하고 있다. 그 결과 위탁아동의 사회적·정서적 적응은 부모의 수용력(Festinger, 1994; Walsh & Walsh, 1990), 신뢰로운 양육방식(Smith, 1994), 아동의 개인적 특성(Walsh & Walsh, 1990)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탁아동의 우울과 불안, 위축과 같은 정서적 문제는 위탁가족의 부당한 대우(Fanshel, Finch, & Grundy, 1990), 위탁부모가 아

동을 귀찮아하는 것(Smith, 1994), 부모의 낮은 수용력, 위탁모와의 불안정한 애착, 부모-자녀 관계의 낮은 질(Marcus, 1991)과 관련이 있으며, 공격성과 비행과 같은 행동적 문제는 위탁부모와의 불안정한 애착과(Fanshel et al., 1990; Marcus, 1991) 위탁기간 동안 이루어진 과도한 신체적 학대(Fanshel et al., 1990)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위탁아동의 부적응과 정서적·행동적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공통적으로 위탁부모와 위탁아동간의 애착과 관계의 질, 위탁가족체계의 상호영향력이 위탁아동의 이후 발달적 궤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련연구들은 위탁부모가 지각한 위탁아동과의 관계의 질, 가족체계의 영향력이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을 뿐, 정작 위탁아동의 시각에서 위탁부모에 대한 애착표상이 어떠한지, 위탁가족체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아동의 심리내적세계를 알아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탁아동의 입장에서 위탁아동의 심리적·사회적 부적응과 정서적·행동적 특성을 유도하는 핵심적인 기제로 볼 수 있는 애착안정성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는 동시에, 가족에 대한 심리내적 지각을 면밀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애착 이론의 창시자인 Bowlby(1982)는 ‘내적 작동모델(internal working model)’ 개념으로 애착을 설명하였는데, 애착이란 아동이 양육자와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자기 자신과 타인, 그리고 외부세계에 대한 정신적 표상이라고 하였다. 양육자와 형성하는 애착관계는 아동

자신의 행동에 대해 타인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예측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 양육자와 안정적으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고 자신이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는 신념에 바탕을 둔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며, 성장한 이후에도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타인과의 안정된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반면에 양육자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자신과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을 가치 없는 사람으로 지각하는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게 되며 성장한 이후에도 타인과 불안정한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된다(이경숙, 1996). 특히 Bowlby(1982)와 Ainsworth(1969)는 아동기에 형성된 애착의 영향은 전 생애에 걸쳐 일어나고 지속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위탁아동의 대부분은 위탁 전에 부모의 사망, 가출, 이혼, 방임, 아동학대, 가족빈곤 등을 경험하고 일반 아동보다 양육자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애착을 형성할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불안정한 애착을 가진 아동이 많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친부모와 형성된 불안정한 애착표상이 지속되어 위탁부모와의 새로운 애착관계를 형성하는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Hamilton(1995)은 초기 부모 혹은 양육자에 의해 형성된 애착의 내적작동모델은 성장과정에서 양육자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지지적일 때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애착의 질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친부모와 분리되는 동시에 위탁가정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진입한 위탁아동

의 현재 애착상태를 파악하여 적절히 개입해주는 것은 추후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과 바람직한 인격형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탁아동의 애착유형은 어떠한 지, 위탁아동의 성별, 친부모와의 만남, 위탁기간 등에 따라 애착유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편, 아동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이상에서 살펴본 부모와의 애착 관계뿐 아니라 가족 내의 가족구성원 또한 아동의 발달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가족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행동, 성격, 태도 등은 아동의 정서를 발달시키고 아동의 사회적인 경험을 확장시켜나가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이원영, 1985). 아동은 가족과 상호교류하는 생활 속에서 많은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통해 가족개념과 지각을 발달시킨다(김경둘, 조인수, 2001). 따라서 가족 개개인의 인격이 아동의 인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이 가족구성원을 어떻게 지각하는지가 이후 아동의 인성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유은진, 1987). 특히 가족의 행동, 성격, 태도, 그리고 가족 구조와 역동성 등 가족 상호관계에 대한 인식이 아동의 생활 적응과 사회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Myers, 1978; Sims, 1974; 안승철, 1996; 최선남, 1996; 신순자, 1995) 통해 입증되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위탁아동의 경우 양육의 특성상 새로운 가족체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후 위탁아동의 발달에 이러한 가족체계에 대한 심리내적인 지각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탁아동이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전체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탐색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앞서 애착과 가족에 대한 지각에 관련된 선행연구에서 지적된 연구방법 상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애착에 관한 연구는 초기 애착의 중요성에 기인하여 주로 영아기를 대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대표적으로 주양육자와의 애착을 평가하는 낯선상황실험절차(SSP)가 주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이후 아동기, 학령기 아동의 애착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기존 영아를 대상으로 한 애착평가 도구의 한계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Green, Stanley와 Goldwyn (2003)는 학령기 아동들의 애착관계를 평가하기 위해 인형놀이완성방법인 맨체스터 아동 애착 이야기 검사(The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Task)를 개발하였다. 이 도구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안정적인 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맨체스터 아동 애착 이야기로 측정된 아동의 애착 유형과 성인애착면접을 통해 측정한 아동의 어머니들의 애착유형과 일치도 또한 61%에서 65%사이의 수치를 보여(Green, Stanley, & Goldwyn, 2003) 좋은 신뢰도 및 타당도를 가진 도구로 평가 된다(이경숙, 진미경, 2007). 최근 우리나라의 연구(이경숙, 진미경, 2007)에서도 아동기 애착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맨체스터 아동 애착 이야기 검사를 사용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만 5-8세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맨체스터 아동 애착 이야기 검사를 사용하여 애착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이 가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관찰법, 면접법, 질문지법, 투사법 등이 있다. 그러나 친가족과 분리되어 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다른 접근보다는 투사법의 하나인 가족그림검사가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가족그림검사가 비언어적 표현방법으로 가족구성원간의 관계를 언어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으로 표현하는 것을 피할 수 있고, 부모에 대한 긍정적·부정적인 생각, 감추어진 감정, 적개심,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정신적 손상 없이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신민섭, 2003). 더욱이 가족그림검사를 사용한 국내외 선행연구(박혜련, 1992; 양익홍, 1984; 유혜정, 1998; 백성혜, 2003; O'Brien & Patton, 1974; Sims, 1974)들에서 가족그림검사는 가족 또는 부모-자녀관계와 관련된 아동의 문제, 가족 내에서 느끼는 감정과 가족 간 상호작용, 가족 체계, 가족의 역동성 및 가족관계를 평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김윤숙, 2005,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검사를 통하여 애착유형의 분포를 알아보고, 위탁아동의 성별, 위탁유형, 위탁기간 및 친부모와의 만남여부에 따라 애착유형에 차이가 있는지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가족그림검사를 통해 위탁아동이 가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 위탁아동의 성별, 위탁유형, 위탁기간, 친부모와의 만남여부에 따라 가족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위탁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라 가족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위탁아동의 애착유형과 가족에 대한 지각을 총괄적으로 분석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위탁아동의 사회적·정서적 특성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아동의 심리상태에 대한 정보를 얻어 위탁아동의 추후 발달을 예측하고, 위탁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공적인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위탁아동의 애착유형은 어떠한가?

1-1. 위탁아동과 일반아동의 애착유형에는 차이가 있는가?

1-2. 위탁아동의 성별, 위탁유형, 위탁기간, 친부모만남여부에 따라 애착유형에 차이가 있는가?

2. 위탁아동의 가족지각은 어떠한가?

2-1. 위탁아동과 일반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각에는 차이가 있는가?

2-2. 위탁아동의 성별, 위탁유형, 위탁기간, 친부모만남여부에 따라 가족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는가?

3. 위탁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라 가족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경기도에 소재한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가정위탁을 받고 있는

만 5-8세 위탁아동 30명(남아 12명, 여아 18명)과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5-8세 일반아동 30명(남아 13명, 여아 17명) 등 총 60명의 아동이었으며, 인구학적 특성은 표 1, 표 2에 제시하였다. 우선 위탁아동은 경기도에 소재한 가정위탁지원센터 1곳에 연구 협조문을 보낸 후, 사회복지사가 대상연령의 각 위

탁가정으로 연락하여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반아동은 서울과 경기도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2곳에 연구 협조문을 보낸 후, 가정으로 연락하여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맨체스터 아동 애착 이야기 검사의 경우 아동의 언어적 표현

표 1. 연구대상 아동의 특성

변 인	구 분	위탁아동 (N=30)	일반아동 (N=30)
		빈도(%)	빈도(%)
성 별	남	12 (40.0)	13 (43.3)
	여	18 (60.0)	17 (56.7)
연 령	5세	3 (10.0)	12 (40.0)
	6세	6 (20.0)	13 (43.3)
	7세	12 (40.0)	3 (10.0)
	8세	9 (30.0)	2 (6.7)
KEDI-WISC 전체 지능	90 - 109	26 (86.7)	19 (63.3)
	110 - 119	2 (6.7)	4 (13.3)
	120 이상	2 (6.7)	7 (23.3)
위탁 유형	대리양육가정	6 (20.0)	
	친인척위탁가정	9 (30.0)	
	일반위탁가정	15 (50.0)	
위탁 기간	1 - 2년	15 (50.0)	
	3 - 5년	8 (26.7)	
	6 - 7년	7 (23.3)	
위탁의뢰사유	부모사망/가출	12 (40.0)	
	부모실직/빈곤	8 (26.7)	
	부모이혼	6 (20.0)	
	미혼모 등 기타	4 (13.3)	
위탁가정	유	27 (90.0)	
형제자매 유무	무	3 (10.0)	
친부모	만남	15 (50.0)	
만남여부	안만남	15 (50.0)	

표 2. 위탁아동 어머니와 일반아동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

변인	구분	위탁아동 어머니 (N=30)	일반아동 어머니 (N=30)
		빈도(%)	빈도(%)
연령	30대	5 (16.7)	27 (90.0)
	40대	15 (50.0)	3 (10.0)
	50대 이상	10 (33.3)	
학력	고졸 이하	21 (70.0)	6 (20.0)
	대 졸	8 (26.7)	19 (63.3)
	대학원졸 이상	1 (3.3)	5 (16.7)
직업	전문직	5 (16.7)	5 (16.7)
	사무·관리직	1 (3.3)	4 (13.3)
	기술·기능직	2 (6.7)	0 (0)
	자영업	3 (10.0)	0 (0)
	판매·서비스직	2 (6.7)	1 (3.3)
	생산·단순직	3 (10.0)	0 (0)
	무직·전업주부	14 (46.7)	20 (66.7)
부모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위	상류	3 (10.0)	1 (3.3)
	중상류	4 (13.3)	3 (10.0)
	중류	8 (26.7)	22 (73.3)
	중하류	8 (26.7)	4 (13.3)
	하류	7 (23.3)	0 (0)

이 요구되며, 가족그림검사의 경우 아동의 인지발달이 그림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인지와 언어발달 정도에 따른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아동용 지능검사인 한국판 아동용 웨슬러 지능검사(KEDI-WISC)를 실시하여 위탁아동과 일반아동 모두 전체 지능이 90이상인 아동 60명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 위탁아동의 특성을 살펴보면, 위탁 유형은 일반위탁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아동

이 가장 많았으며, 위탁기간은 평균 3년 4개월, 위탁배치 시 아동의 평균연령은 3세 7개월이었으며, 친부모와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각각 50%였다. 다음으로 위탁아동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위탁아동 어머니의 경우 연령은 40대가, 학력은 고졸이하가 가장 많았다. 또한 위탁아동과 일반아동 어머니 모두 전업주부가 가장 많았으며, 부모가 지각한 사회경제적 지

위가 중류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0% 이상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맨체스터 아동 애착이야기 검사

아동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하여 Green, Stanley와 Goldwyn(2003)이 학령기 아동의 애착표상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맨체스터 아동 애착 이야기 검사(The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Task)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인형놀이를 통한 이야기 완성 검사로 준비시키기 위한 Warm-up 에피소드와 모와의 애착과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4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에게 엄마인형과 아이인형을 가지고 악몽을 꾸었을 때, 다쳤을 때, 아플 때, 엄마를 잃어버렸을 때의 상황을 연출해주고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인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이야기를 완성해보도록 요구하는 검사이다. 아동의 이야기가 끝나면 아동에게 엄마인형과 아이인형 각각의 지금의 기분 혹은 감정과 생각을 묻는다. 이것은 아동이 애착과 관련된 갈등상황의 이야기를 끝낸 후 진정의 정도를 파악하고, 다시 한 번 아동을 인형의 입장이 되는 것을 도와준다. 아동이 이야기를 완성하는 동안 아동의 이야기 내용과, 아동이 보이는 언어적·비언어적 반응을 토대로 하여 근접성 추구(proximity), 양육자의 따뜻함(carer warmth), 양육자 민감성(carer sensitivity), 자기 돌봄(self-care), 강압적(intrusiveness), 갈등이 있는 행동(conflicted behavior) 등의 양육에 대한 척도에 근거하여 애착과 관련된 행동을 평가한다. 또한 맨체스

터 아동 애착이야기 검사는 아동 이야기의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성인애착 면접의 개념인 일관성(coherence)의 개념을 도입하였는데 일관성에 대한 척도는 이야기 내용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질적인 측면), 간결하면서도 분명한지(양적인 측면),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관련성의 측면), 어법상 명확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 하는지(양식의 측면)를 평가한다. 각 척도는 1-9점의 점수범위를 갖고 각 척도의 점수를 바탕으로 아동의 애착 유형을 안정애착(B), 회피애착(A), 저항애착(C), 비조직화(D) 유형으로 분류한다(Green, Stanley, & Goldwyn, 2003).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이는 스트레스 시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통해 완화되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안정애착유형의 아동은 스트레스를 공유하거나 해결하기 위해 엄마의 돌봄을 추구하고 받아들이며 이로 인해 스트레스가 완화됨을 보여준다. 회피애착유형의 아동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양육자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지 않으며 자기 돌봄의 형태를 보이거나 스트레스 자체에 대한 거부를 보인다. 저항애착유형의 아이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양육자를 등장시키지만 양가적인 태도를 보인다.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만큼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상반되는 행동들을 보이게 된다. 비조직애착유형과 관련해서는, 문제해결을 위한 전략(strategy) 자체가 부재이거나, 여러 가지 전략들이 혼합된 경우, 동시적 혹은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상반된 행동, 맥락 밖의 상반된 행동으로의 갑작스런 움직임, 불완전한 움직임들, 순간적인 얼어붙는 듯한 행동이나 정지 자세, 부모를 향한 두려움, 직접

적인 비조직화된 행동들 등이 관련된 지표들이다(진미경, 유미숙, 2005). 본 도구로 측정된 아동의 애착유형과 성인애착면접을 통해 측정된 아동의 어머니들의 애착유형과 일치도 또한 61%에서 65%사이의 수치를 보여(Green, Stanley, & Goldwyn, 2003), 좋은 신뢰도 및 타당도를 가진 도구로 평가되고 있으며(진미경, 이경숙, 2007), 최근 국내 연구에서도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진미경, 이경숙, 2007). 모든 검사과정은 비디오로 녹화되었으며, 애착유형 분류는 맨체스터 애착 이야기 절차와 평가를 위한 워크숍을 맨체스터 대학에서 이수하고 신뢰성 테스트를 통과하고 일정 훈련을 받은 발달심리전문가와 평정훈련을 받은 본 연구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두 평정자간 일치도는 $r=.89$ 이었으며, 불일치를 보인 사례는 두 평정자간 논의를 통해 합의를 하였다.

가족그림검사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각이 어떠한 지를 그림을 통해 살펴보는 Fury(1996)의 가족그림검사를 실시하였다. 검사자는 부모와 분리된 공간에서 아동에게 12×18인치의 흰 종이와 10가지 색의 색연필을 제시하며 가족그림을 그리도록 한 뒤, 아동이 그림에 포함되어 있는 인물들을 식별하게 하고 그들이 아동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야기 하도록 한다. 본 척도는 생명력/창조성, 가족에 대한 긍지/행복감, 취약성, 정서적 거리감, 긴장/분노, 역할전이, 기괴함 하위척도별로 1점에서 7점까지 평정하도록 구성되어있다. 생명력/창조성은 그림에서 장식, 상세함, 창조성이 반영된 아동의 노력을 평가하며, 가족에 대한 긍지/행

복감은 가족구성원으로의 소속감 또는 행복감을, 취약성은 인물들의 크기 왜곡, 위치, 신체 일부의 과장으로 반영된 취약성과 불확실성을, 정서적 거리감은 아동과 가족 사이의 중립적 또는 부정적 정서, 거리감을 측정한다. 또한 긴장/분노는 색채나 상세함이 없이 갑갑하게 보이는 인물들에 반영된 긴장과 분노를, 역할전이는 인물들의 역할 또는 크기에서 반영된 역할전이의 특징을, 마지막으로 기괴함은 가족화에서 아동에 의해 표현된 분노의 독특한 형식, 즉 그림에 나타난 이례적인 상징들, 환상적인 주제를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척도의 평정은 발달심리전문가와 평정훈련을 받은 석사과정생 1인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두 평정자간의 일치도는 $r=.91$ 로 나타났다. 이후 불일치를 보이는 사례에 대해서는 두 평정자간 논의에 의하여 일치하도록 하였다.

3. 실험절차

본 연구를 위한 자료조사는 2007년 1월 초부터 9월 말까지 경기도에 소재한 가정위탁지원센터 1곳과 서울과 경기도 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2곳의 협조를 얻어 검사자가 아동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검사가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환경에서 검사를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위탁아동과 일반아동의 애착유형의 차이를 비교하고 위탁아동의 성별, 위탁유형, 위탁기간, 친부모와의 만남여부에 따른 애착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Chi-square)분석을 실시하였다. 위탁아동과 일반아동의 가족지각의 차이와 위탁아동의 성별, 위탁유형, 위탁기간,

친부모와의 만남여부에 따른 가족지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위탁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른 가족지각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 검정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위탁아동과 일반아동의 애착유형 차이비교

위탁아동과 일반아동의 애착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χ^2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분석결과 위탁아동과 일반아동의 애착유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위탁아동은 안정 애착유형 10명(33.3%), 불안정애착유형 20명(66.7%)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정애착유형은 비조직애착유형 9명(30.3%), 회피애착유형 6명(20.0%), 저항애착유형 5명(16.7%)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아동은 안정 애착유형 18명(60.0%), 불안정애착유형 12명(40.0%)으로 나타났으며, 불안정애착유형은 회피애착유형 8명(26.7%),

저항애착유형 3명(10.0%), 비조직애착유형 1명(3.3%)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위탁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안정애착유형이 더 적었으며, 불안정애착유형에서는 위탁아동의 경우 비조직애착유형(30.3%) 가장 많이 보인 반면, 일반아동의 경우 회피애착유형(26.7%) 가장 많이 보였다.

2. 위탁아동의 성별, 위탁유형, 위탁기간, 친부모만남여부에 따른 애착유형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위탁아동의 성별, 위탁유형, 위탁기간, 친부모만남여부에 따른 애착유형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애착의 네 가지 유형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에는 각 유형별 사례수가 적은 관계로 안정애착유형 대 불안정애착유형으로 분류한 뒤, 각각 χ^2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탁아동의 성별에 따른 애착유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남자 위탁아동은 총 12명 중 안정애착유형 4명(33.3%), 불안정애착유형 8명(66.7%)으로 나타났고, 여자 위탁

표 3. 위탁아동과 일반아동의 애착유형 차이비교

애착유형	위탁아동 (N=30)	일반아동 (N=30)	계	χ^2
	빈도(%)	빈도(%)	빈도(%)	
안정(B)	10(33.3)	18(60.0)	28(46.7)	9.471*
회피(A)	6(20.0)	8(26.7)	14(23.3)	
저항(C)	5(16.7)	3(10.0)	8(13.3)	
비조직화(D)	9(30.0)	1(3.3)	10(16.7)	
계	30(100.0)	30(100.0)	60(100.0)	

* $p < .05$

표 4. 위탁아동의 성별에 따른 애착유형 차이비교

애착유형	남자 위탁아동 (N=12)	여자 위탁아동 (N=18)	계	χ^2
	빈도(%)	빈도(%)	빈도(%)	
안정(B)	4(33.3)	6(33.3)	10(33.3)	.000
불안정(A,C,D)	8(66.7)	12(66.7)	20(66.7)	
계	12(100.0)	18(100.0)	30(100.0)	

아동은 총 18명 중 안정애착유형 6명(33.3%), 불안정애착유형 12명(66.7%)으로 나타나 성에 따른 애착유형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 위탁아동의 위탁유형에 따른 애착유형의 차이가 어떠한지를 살펴보았다. 각 유형별 사례수가 적은 관계로 위탁유형은 혈연관계에 있는 대리양육과 친인척가정위탁 대 혈연관계에 있지 않은 일반가정위탁으로 분류한 뒤, χ^2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 대리·친인척가정 위탁아동은 총 15명 중 안정애착유형 6명(40.0%), 불안정애착유형 9명(60.0%)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위탁아동은 총 15명 중 안정애착유형 4명(26.7%), 불안정애착유형 11명(73.3%)으로 나타나 안정애착유형과 불안정애착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탁아동의 위탁기간에 따른 애착유형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체 위탁아동의 평균 위탁기간인 3년을 기준으로 하여 위탁기간이 3년 미만인 아동과 3년 이상인 아동으로 분류한 뒤, χ^2 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위탁기간이 3년 미만인 위탁아동과 위탁기간이 3년 이상인 위탁아동 모두 각각 총 15명 중 안정애착유형 5명(33.3%), 불안정애착유형 10명(66.7%)으로 나타나 안정애착유형과 불안정애착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위탁아동의 친부모와의 만남여부에 따른 애착유형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친부모를 만나고 있는 위탁아동은 총 15명 중 안정애착유형 6명(40.0%), 불안정애착유형 9명(60.0%)으로 나타났고, 친부모를 만나지 않는 위탁아동은 총 15명 중 안정

표 5. 위탁아동의 위탁유형에 따른 애착유형 분포비교

애착유형	대리·친인척 위탁아동 (N=15)	일반 위탁아동 (N=15)	계	χ^2
	빈도(%)	빈도(%)	빈도(%)	
안정(B)	6(40.0)	4(26.7)	10(33.3)	.600
불안정(A,C,D)	9(60.0)	11(73.3)	20(66.7)	
계	15(100.0)	15(100.0)	30(100.0)	

표 6. 위탁아동의 위탁기간에 따른 애착유형 분포비교

애착유형	위탁기간 3년미만 아동 (N=15)	위탁기간 3년이상 아동 (N=15)	계	χ^2
	빈도(%)	빈도(%)	빈도(%)	
안정(B)	5(33.3)	5(33.3)	10(33.3)	.000
불안정(A,C,D)	10(66.7)	10(66.7)	20(66.7)	
계	15(100.0)	15(100.0)	30(100.0)	

표 7. 위탁아동의 친부모와의 만남여부에 따른 애착유형 분포비교

애착유형	친부모와 만남 (N=15)	친부모와 만나지않음 (N=15)	계	χ^2
	빈도(%)	빈도(%)	빈도(%)	
안정(B)	6(40.0)	4(26.7)	10(33.3)	.600
불안정(A,C,D)	9(60.0)	11(73.3)	20(66.7)	
계	15(100.0)	15(100.0)	30(100.0)	

애착유형 4명(26.7%), 불안정애착유형 11명(73.3%)으로 나타나 안정애착유형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위탁아동과 일반아동의 가족지각 차이비교

위탁아동과 일반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각

표 8. 위탁아동과 일반아동간의 가족지각에 대한 t검정

	위탁 (N=30)	일반 (N=30)	t
	M (SD)	M (SD)	
생명력	3.37 (1.27)	4.30 (1.88)	-2.253*
가족궁지/행복	3.43 (1.36)	4.20 (1.90)	-1.798
취약성	4.93 (1.23)	3.50 (1.91)	3.459**
정서적거리감	5.93 (1.51)	3.80 (2.25)	4.315***
긴장	4.40 (1.16)	3.57 (1.87)	2.073*
역할전이	4.13 (1.81)	2.17 (1.26)	3.779**
기괴함	3.80 (1.21)	2.53 (1.66)	3.379**

* $p < .05$, ** $p < .01$, *** $p < .001$

에 차이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가족에 대한 지각 하위영역 중 생명력/창조성($t=-2.253, p<.05$), 취약성($t=3.459, p<.01$), 정서적 거리감($t=4.315, p<.01$), 긴장/분노($t=2.073, p<.05$), 역할전이($t=3.779, p<.01$), 기괴함척도($t=3.379,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위탁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가족에 대한 지각 중 생명력과 창조성은 낮게, 취약성, 정서적 거리감, 긴장과 분노, 역할전이, 기괴함은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족에 대한 긍지와 행복감에서는 위탁아동과 일반아동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위탁아동의 성별, 위탁유형, 위탁기간, 친부모만남여부에 따른 가족지각의 차이

위탁아동의 성별, 위탁유형, 위탁기간, 친부모만남여부에 따른 가족에 대한 지각의 차이

를 알아보기 위해 각각 t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9, 표 10, 표 11, 표 12에 제시하였다.

먼저 위탁아동의 성별에 따른 가족지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기괴함 척도($t=2.295,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남자 위탁아동이 여자 위탁아동보다 가족에게서 기괴함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여자 위탁아동이 남자 위탁아동보다 가족에 대한 긍지와 행복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음으로 위탁아동의 위탁유형에 따른 가족지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족지각 척도의 모든 하위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위탁아동의 위탁기간에 따른 가족지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생명력/창조성척도($t=-3.106, p<.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위탁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이 3년 미만인 아동보다

표 9. 위탁아동의 성별에 따른 가족지각에 대한 t 검정

가족지각 척도	남자 위탁아동 (N=12)	여자 위탁아동 (N=18)	t
	M (SD)	M (SD)	
생명력/창조성	3.16 (1.26)	3.50 (1.29)	-.697
가족긍지/행복	2.92 (1.00)	3.78 (1.48)	-1.764
취약성	5.08 (.79)	4.83 (1.47)	.539
정서적거리감	6.33 (1.07)	5.67 (1.71)	1.309
긴장/분노	4.50 (.67)	4.33 (1.41)	.379
역할전이	4.60 (1.34)	3.90 (2.02)	.694
기괴함	4.33 (.78)	3.44 (1.34)	2.295*

* $p<.05$

표 10. 위탁아동의 위탁유형에 따른 가족지각에 대한 *t*검정

가족지각 척도	대리·친인척가정 위탁아동 (N=15)	일반가정 위탁아동 (N=15)	<i>t</i>
	M (SD)	M (SD)	
생명력/창조성	3.73 (1.03)	3.00 (1.41)	1.622
가족금지/행복	3.66 (1.29)	3.20 (1.42)	.940
취약성	5.53 (1.06)	5.33 (1.29)	-1.855
정서적거리감	6.00 (1.69)	5.86 (1.35)	.238
긴장/분노	4.06 (.96)	4.73 (1.27)	-1.613
역할전이	4.00 (1.87)	4.20 (1.87)	-.195
기괴함	3.73 (1.16)	3.86 (1.30)	-.296

표 11. 위탁아동의 위탁기간에 따른 가족지각에 대한 *t*검정

가족지각 척도	위탁기간 3년미만 아동 (N=15)		위탁기간 3년이상 아동 (N=15)		<i>t</i>
	M	(SD)	M	(SD)	
생명력/창조성	2.73	(1.28)	4.00	(.93)	-3.106**
가족금지/행복	3.00	(1.46)	3.87	(1.13)	-1.818
취약성	5.20	(1.42)	4.67	(.96)	1.196
정서적거리감	6.33	(1.23)	5.53	(1.68)	1.484
긴장/분노	4.73	(1.44)	4.07	(.70)	1.613
역할전이	5.00	(1.63)	3.38	(1.69)	1.890
기괴함	4.20	(1.21)	3.40	(1.12)	1.881

***p*<.01

가족에게서 생명력과 창조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지만 위탁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이 3년 미만인 아동보다 가족에게서 가족의 금지와 행복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위탁기간이 3년 미만인 아동은 3년 이

상인 아동보다 가족에게서 역할전이와 기괴함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위탁아동의 친부모와의 만남여부에 따른 가족지각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가족지각 하위척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2. 위탁아동의 친부모와의 만남여부에 따른 가족지각에 대한 t 검정

	친부모와 만남 (N=15)	친부모와 만나지않음 (N=15)	t
	M (SD)	M (SD)	
생명력	3.07 (1.44)	3.67 (1.05)	-1.307
가족금지/행복	3.33 (1.35)	3.53 (1.41)	-.398
취약성	5.07 (1.22)	4.80 (1.26)	.587
거리감	6.07 (1.33)	5.80 (1.70)	.478
긴장	4.47 (1.19)	4.33 (1.18)	.309
역할전이	4.43 (2.23)	3.86 (1.46)	.578
기괴함	3.93 (1.03)	3.67 (1.40)	.594

5. 위탁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른 가족지각의 차이비교

위탁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른 가족지각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t 검정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가족지각 하위영역 중 가족금지/행복척도($t=-2.354$, $p<.05$)와 취약성

($t=2.953$, $p<.01$), 긴장척도($t=2.115$, $p<.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안정애착유형을 가진 위탁아동이 불안정애착유형을 가진 위탁아동보다 가족에게서 가족의 금지와 행복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불안정 애착유형을 가진 위탁아동이 안정애착유형을 가진 위탁아동보다 가족에게서 취약성과 긴장

표 13. 위탁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른 가족지각의 차이검증

	안정애착 (N=10)	불안정애착 (N=20)	t
	M (SD)	M (SD)	
생명력	3.80 (1.14)	3.15 (1.31)	-1.337
가족금지/행복	4.20 (1.32)	3.05 (1.23)	-2.354*
취약성	4.10 (1.10)	5.35 (1.09)	2.953**
거리감	6.00 (1.63)	5.90 (1.48)	-.168
긴장	3.80 (1.03)	4.70 (1.19)	2.115*
역할전이	4.33 (1.97)	3.33 (.58)	.849
기괴함	3.40 (1.17)	4.00 (1.21)	1.290

* $p<.05$, ** $p<.01$

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위탁아동과 일반아동의 애착유형과 가족에 대한 지각을 비교하고 위탁아동의 성별, 위탁유형, 위탁기간, 친부모와의 만남여부에 따라 애착유형과 가족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는 지, 그리고 위탁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라 가족에 대한 지각에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위탁아동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얻어진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탁아동과 일반아동의 애착유형을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위탁아동이 일반아동보다 안정애착은 적게 보이고, 불안정애착은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양육과정에서 양육자의 민감하고 수용적이며 일관된 보호와 양육은 아동과 양육자간의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Bowlby, 1969). 그러나 위탁아동의 경우 친가정의 초기 양육환경이 빈곤과 열악한 주거환경 및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속하고, 부모의 이혼, 가출 등으로 가족안정성이 와해된 가정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환경 속에서 양육자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위탁아동이 위탁 이전 친부모의 사망, 유기 및 방임, 아동학대, 가족빈곤 등을 경험하고(Stone & Stone, 1983; Leathers, 2000; Johnson-Garner & Meyers, 2003; Heflinger,

Simpkins, & Combs-Orme, 2000; Pilowsky, 1995),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친부모와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거나(Rosenfeld, Pilowsky, & Fine, 1997), 빈약한 유대관계(Vuchinich, Ozretich, Pratt, & Kneedler, 2002)를 맺고 있다는 연구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양육자와 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긍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여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반면, 불안정애착을 형성한 아동은 부정적인 내적작동모델을 형성하여 타인과의 관계에서 불신감, 거부, 또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Bowlby, 1969). 특히 본 연구대상 위탁아동의 위탁 당시 평균 연령이 만 3세 7개월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어느 정도 이미 친부모 양육자와 불안정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었던 위탁아동의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내적표상이 반영되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으며, 이러한 영향이 이후 위탁가정에서 위탁부모 및 가족과의 새로운 관계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위탁 배치 시 초기에 위탁아동과 위탁부모의 안정적인 관계형성을 위한 치료적 접근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위탁아동은 불안정애착 중 비조직애착유형을 가장 많이 보였는데, 이는 7-9세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한 Russell(2002)의 연구에서 불안정 애착의 대부분은 비조직애착유형으로 나타났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연령은 다르지만 12-24개월의 위탁아동을 대상으로 애착유형을 조사한 결과 불안정애착의 대부분의 유아들이 비조직 애착유형으로 분류되어 비조직 애착유형에 대한 비율이 일반아동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Dozier et al., 2001)는 연구결과와도 맥락

을 같이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은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를 완성하는 과정에서 검사자에 의해 제시된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나 맥락에 맞지 않는 주제를 반복해서 말하거나,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가상의 기괴하고 비조작적인 이야기들을 두서없이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대부분의 위탁아동은 본래의 주제로 되돌리려는 검사자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신만의 이야기에 빠져들거나 이야기를 끝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고, 끝낼 경우 갈등의 해결 없이 갑작스럽게 끝났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았다. 비조직애착유형 위탁아동들의 대부분이 심리적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는 Russell(2002)의 연구결과로 볼 때 가족해체와 위탁가정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위탁아동이 겪었을 심리적 고통과 슬픔이 애착과 관련된 이야기의 내용과 일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또한 위탁아동의 비조직애착유형의 비율이 일반아동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것을 중요하게 지적하면서 양육자가 불안정애착표상을 가졌을 때 아동의 비조직애착유형에 대한 위험이 증가하였다고 밝힌 Dozier(2001)의 연구와 관련지어 볼 때 위탁아동의 친부모 또는 현재의 위탁부모의 애착표상도 위탁아동의 비조직애착유형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예상할 수 있고, 부모변인에 따른 애착유형에 대한 후속 연구들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 상에서 위탁아동의 애착유형이 현재 위탁부모와의 애착관계가 혼재되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상의 해석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추후 구체적으로 위탁부모와의 직접적인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애착관계를 동

시에 측정하여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위탁아동의 위탁유형에 따른 애착유형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대리·친인척가정 위탁아동이 일반가정 위탁아동보다 안정애착을 더 많이 보이는 반면, 일반가정 위탁아동은 불안정애착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친족간의 혈연관계를 중시하는 한국적 상황에서 인척관계의 가정에서 위탁양육되는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관계상 심리적으로 더 안정적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추후 더 많은 사례수를 포함한 후속연구들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위탁아동의 친부모와의 만남여부에 따른 애착유형을 비교한 결과, 친부모를 만나고 있는 아동이 만나지 않는 아동보다 안정애착을 더 많이 보이는 반면, 친부모를 만나지 않는 아동은 불안정애착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위탁아동과 친부모와의 만남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으므로 후속연구들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사례수가 적은 관계로 친부모와의 만남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아닌지, 횟수는 몇 번 인지에 대한 통제 없이 위탁이후 친부모와 만남을 한 경험이 있는 아동을 친부모와 만나는 아동으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제한점으로 생각되며,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사례로 여러 가지 변인을 통제하

여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친부모의 만남이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를 떠나서 가정위탁은 가정복귀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친부모와의 접촉이 중요하며(Hess & Proch, 1993), 위탁가정에서 친부모와의 정기적인 만남은 성공적인 적응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가정복귀 이후의 긍정적 적응과도 관련 되므로(Maluccio, 1991; Cantos & Gries, 1996) 친부모와의 만남은 긍정적이고도 합리적인 관계형성(O'Donnell, 2001; Proch & Howard, 1986)과 친밀하고 정서적인 관계형성(Schatz & Faust, 1991)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위탁아동과 일반아동의 가족에 대한 지각을 비교한 결과, 위탁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가족에게서 생명력과 창조성은 낮게, 취약성, 정서적 거리감, 긴장과 분노, 역할전이, 기괴함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은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반아동은 가족그림에 있어서 색채가 다양하고, 완전하고, 여러 면에서 꽤 특징적이며 가족과의 활동에 활력과 에너지를 표현한 그림이 많았다. 반면 위탁아동은 전체적으로 그림에 에너지가 없고 우울해보이고, 가족 또는 세부배경을 최소한으로 그리거나 다양한 색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고, 또한 그림의 크기와 배치에 있어 종이크기와 균형이 잡혀있지 않거나, 인물묘사에서 적절한 분화와 통합이 되어 있지 않고, 고의적으로 엄마와 자신을 따로 떨어뜨려 그리거나, 감정적인 거리감과 분노의 표시를 나타낸 그림이 더 많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탁아동의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지각이 그림을 통해 반영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대상 위탁아동의 위탁시

평균 연령이 만 3세 7개월이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위탁아동이 위탁경험으로 인해 친부모에게 거절당하고 버림받았으며, 타의에 의해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우울과 불안 및 분노감정을 느끼고, 가족에 대한 부정적 지각을 형성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위탁아동의 성별에 따른 가족지각을 비교한 결과, 남아가 여아에 비해 가족에게서 기괴함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여아가 가족에게서 가족의 긍지와 행복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여아가 남아보다 가족관계와 가족분위기를 더 긍정적으로 지각한다는 여러 연구결과(이종희, 2005; 안윤일, 2000; 이영은, 2001; 김문정, 2004)와 맥락을 같이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아는 가족 구성원의 신체부위를 부분적으로 생략하여 미완성의 느낌을 갖게 하거나, 날카로운 치아, 공격적인 표정 또는 공격적인 자세 등을 더 많이 표현하였다. 이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환경에 대한 지배욕구 및 자아의식이 강하며 가족에 대한 심리적 갈등 및 불안, 경쟁, 공격성을 보인다(오연주, 홍혜자, 1998; 김윤희, 1998)는 연구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위탁아동에게는 위탁된 이후 새로운 가족체계 안에서 지켜야 할 새로운 규칙, 예절, 생활태도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여아는 수동적이고 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위탁가정에서 요구하는 대로 잘 따르는 편인 반면, 남아는 쉽게 받아들이거나 변화하지 못해 위탁가족과 아동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점이 남아가 가족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결과를 보였다고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위탁

가정에서 아동의 성별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에 차이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위탁아동의 위탁기간에 따른 가족지각을 비교한 결과, 위탁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이 3년 미만인 아동보다 가족에게서 생명력과 창조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가족의 긍지와 행복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위탁기간이 3년 미만인 아동은 3년 이상인 아동보다 가족에게서 역할전이와 기피함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위탁기간이 오래 지속된 아동이 가족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위탁기간이 3년 미만인 아동은 위탁부모 보다 자신을 더 크게 그리거나 위탁부모의 신체부위를 부분적으로 과장되게 표현하였고, 정서적 유대감을 표현하는 사인이 더 적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위탁배치 초기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위탁아동의 심리상태의 변화 측면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위탁아동은 위탁 초기에 친가정과 다른 양육 환경, 양육태도 전반에 걸쳐 이질감을 느끼고 위탁가정의 가족원으로 쉽게 융합되지 못하고 주변인의 위치에서 혼란스러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로 인해 위탁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아동의 경우 가족들을 일관되고 지지적인 사람으로 신뢰하기가 어렵고 가족 안에서의 역할 관계를 명백히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위탁아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게 되며, 친부모는 아니어도 자신에게 물질적·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위탁부모를 가족으로 생각하게 된다. 위탁기간이 3년 이상인 아동

이 3년 미만인 아동보다 그림에서 가족들을 비교적 완전하게 표현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더 많이 보인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위탁아동이 새로운 가족체계에 적응하여 가족에 대해 긍정적인 지각을 보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위탁아동이 배치 후 더 빠르게 가족체계에 융합될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위탁아동의 심리적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도와주는 위탁가족의 관심과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물론, 위탁 전 위탁아동과 위탁가정 간에 미리 관계를 형성하여 이질감 또는 혼란스러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접근이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위탁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른 가족에 대한 지각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안정애착유형의 위탁아동이 불안정애착유형의 위탁아동보다 가족에게서 가족의 긍지와 행복을 더 높게 지각하는 반면, 불안정 애착유형의 위탁아동은 안정애착유형의 위탁아동보다 가족에게서 취약성과 긴장감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정애착아동이 불안정애착아동보다 가족을 더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본 연구와 동일한 측정도구를 사용한 일반아동의 애착유형에 따른 가족화 연구에서 불안정애착유형 아동은 취약성, 정서적 거리감, 긴장, 기피함과 같은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고, 안정애착유형 아동은 가족에 대한 긍지, 생명력과 같은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진미경, 이경숙, 2007)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안정애착아동이 불안정

애착아동보다 그림에서 자신과 어머니를 더 가깝게 그렸고, 정서적 부적응 집단의 아동이 가족그림을 그릴 때 가족구성원을 생략하는 비율이 높고(Myers, 1978), 가족구성원 사이에 장애물을 더 많이 그렸다(Weinstein, 1965)는 연구결과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안정애착 아동은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Sroufe, 1983) 대인관계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Suess, 1987)이 있는 반면, 불안정애착 아동은 분노가 많고(Londernill & Main, 1981) 냉담하고 적대적인(Sroufe, 1983) 경향이 있다는 애착 관련 선행 연구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가 상당부분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애착의 질이 가족의 그림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가족지각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모와의 애착관계가 위탁아동이 새로 진입한 위탁가족의 역동성을 지각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애착관계에 대한 내적 표상이 내면화되어 가족관계 뿐만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원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위탁아동은 위탁가족을 신뢰하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가족의 역동성을 이해하는 경향을 보이며, 성공적인 적응과 사회적 발달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추론을 해볼 수 있다. 이는 위탁아동의 건강한 발달과 성공적인 적응을 위해서는 친부모 및 위탁부모와 안정된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상선정에 있어 지역적, 연령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표집수

가 작아서 본 연구 결과를 전체집단에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이 따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연령을 대상으로 좀 더 많은 표집수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애착유형과 가족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위탁아동의 성별, 위탁유형, 위탁기간, 친부모와의 만남여부뿐만 설정하여 위탁아동의 포괄적인 심리환경적 요인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제한이 따르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환경변인, 아동변인, 부모변인 등을 고려하여 설계된 포괄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사실상 본 연구에서 아동의 애착을 평가를 위해 사용된 맨체스터 아동 애착 이야기 검사와 가족지각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된 Fury의 가족그림척도는 국내에서 진미경과 이경숙(2007)의 연구에서 처음 소개되어 적용된 것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Fury의 가족그림척도의 적용에 있어서 지능에 대한 통제는 했지만 위탁아동의 경우 연령, 또는 그림을 그릴 경험과 기회의 부족이 그림의 질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후연구를 통한 확인이 요구된다. 넷째, 요보호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정책이 가정보호중심으로 변화하면서 가정위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시설보호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위탁아동과 시설양육아동의 애착유형과 가족지각을 비교해 보는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탁가정과 일반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위탁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

니의 인구학적 특성을 좀 더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보다 다양한 사례를 수집하여 사회경제적 지위와 어머니의 인구학적 특성을 비롯한 가정의 환경이 위탁아동의 애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애착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아동기를 대상으로 하였고,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위탁아동의 애착유형과 가족지각을 함께 살펴본 것이며, 또한 일반아동과 위탁아동의 애착유형과 가족지각을 비교할 수 있었다. 둘째, 기존의 위탁아동에 관한 연구들과 달리 외부관찰자에 의한 평정척도나 자기보고식 설문지의 형태가 아닌 위탁아동이 직접적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애착과 가족지각에 관한 내적표상에 관한 질적 연구를 실시하여 위탁아동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를 도모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통해 밝혀진 위탁아동의 애착유형과 가족지각의 특성이 위탁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과 성공적인 적응을 위한 문제 해결적, 예방적 차원의 전문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경둘, 조인수 (2001). 동적가족화를 통한 정신지체아와 일반아의 가족지각 특성 비교. 발달장애학회지, 5(2), 153-166.
- 김문정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과 아동의 행동문제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5(5), 11-27.
- 김윤숙 (2005). 동적가족화를 통한 유아의 가족지각과 사회·정서 발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윤희 (1998). 유아의 성격과 동적가족화 반응 특성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영 (2001). 가정위탁모의 가정위탁보호에 관한 인식 및 만족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나승혜 (2001). 가정위탁보호 위탁부모의 복지욕구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희천 (2005). 가정위탁보호 부모의 양육실태 및 욕구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백성혜 (2003). 가족화에 나타난 유아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분석: 취학 전 유아 (7세)의 동작성 가족화 (KFD)를 중심으로.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백순미 (2002).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의식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 (2006). 보건복지통계연보.
- 신민섭 (2003). 그림을 통한 아동의 진단과 이해. 서울: 학지사.
- 신순자 (1995).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아동의 동작성 가족화 검사 반응간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안승철, 이영석, 송근진 (1996). 동적가족화 (KFD)에 묘사된 가족의 상호작용 및 역동성에 따른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차이. 미술치료연구, 3(1), 55-69.
- 안윤일 (2000). 아동이 지각한 가족관계, 대인문

- 제 해결력과 사회적 선호도와와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익홍 (1984). 정상유아와 정서장애유아의 운동성 가족화 검사반응의 요인분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오연주, 홍혜자 (1998). 동작성 가족화를 통한 유아의 학교생활 적응도 고찰. 한국미술교과교육학회, 6, 1-23.
- 유은진 (1987).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성격특성, 학업성적 및 지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유혜정 (1998). 유아의 그림검사에 나타난 자아개념에 관한 연구: 인물화 검사, 나무그림 검사, 동작성 가족화 검사 분석을 중심으로. 성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경숙 (1996). 애착장애아동의 특성과 부모-아동 관계개선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진미경, 이경숙 (2007). 아동기 애착 유형에 따른 아동의 가족화 연구. 아동학회지, 28(4), 187-196.
- 이기정 (1998). 가정위탁보호사업의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송이 (1999). 가정위탁보호 양육 환경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지, 4(2), 43-62.
- 이영은 (2002). 동적가족화에 나타난 가족지각과 초등학생의 자아개념. 충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원영 (1985). 부모교육론. 서울: 교문사.
- 이종희 (2005). 아동이 인지한 자신의 가족 및 가치관과 교과서에 나타난 가족 인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진미경, 유미숙 (2005). 애착측정 도구들에 대한 개관: 시기별, 영역별 애착 평가를 위한 도구들의 개관. 인간발달연구, 12(4), 139-158.
- 최선남, 최외선, 손현숙 (1995). 청소년의 우울성향과 동적가족화에 나타난 반응특성과의 관계. 한국미술치료학회, 2(1), 19-35.
- 최중렬 (2005). 아동 위탁가정 유형별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국복지재단 (2001). 가정위탁보호사업 희망의 등지 업무지침서.
- 허남순 (2000). 가정위탁보호제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9.
- Ainsworth, M. D. S. (1969). Object relations, dependency and attachment: A theoretical review of the infant-mother relationship. *Child Development*, 40, 969-1025.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2nd ed.)*. New York: Basic Books. (Original work published 1969)
- Cantos, L. A. & L. T. Gries (1996). Understanding and Supporting Parent-Child Relationship during Foster Care. *Child Welfare*, 76(2), 309-330.
- Dozier, M., Stovall, K. C., Albus, K. E., & Bates, B. (2001). Attachment for infants in foster care: The role of caregiver state of mind. *Child Development*, 72, 1467-1477.
- Fanshel, D., Finch, S. J., & Grundy, J. F. (1990). *Foster children in a life course perspective*. New

-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Festinger, T. (1994). *Returning to care: Discharge and reentry in foster care*.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Fury, G. (1996). The relation between infant attachment history and representations of relationships in school-aged family drawing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Gebel, T. (1996). Kinship Care and Non-Relative Family Foster Care: A Comparison of Caregiver Attributes and Attitudes. *Child Welfare*, 75, 5-18.
- Gleeson, J. P. (1996). Preparing Caseworkers for practice in Kinship foster care: the supervisor's dilemma. *The Clinical Supervision*, 14(1), 19-34.
- Green, J., Stanley, C., & Goldwyn, R. (2003).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Task*. Unpublished manual, University of Manchester.
- Hamilton, C. E. (1995). *Continuity and discontinuity of attachment from infancy through adolescence*.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Indianapolis, Indiana.
- Heflinger, C. A., Simpkins, C. G., & Combs-Orme, T. (2000). Using the CBCL to determine the clinical status of children in state custody.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1(1), 55-73.
- Hess, P. & K. Proch (1993). Visiting: The heart of reunification. In B. Pine, R. Warsh, & A. Maluccio (Eds.). *Together again Family reunification in foster care*.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Johnson-Garner, M. Y. & S. Meyers (2003). What Factors Contribute to the Resilience of African-American Children Within Kinship Care?. *Child and Youth Care Forum*, 32(5), 255-269.
- Londerville, S. & Main, M. (1981). Security of attachment, compliance, and maternal training methods in the second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17, 289-299.
- Marcus, R. F. (1991). The Attachments of Children in Foster Care. *Genetic, Social and General Psychology Monographs*, 117, 365-394.
- Mcauley, C. (1996). *Children in Long-term Foster Care emotional and social development*. London: Athenaeum Press.
- Myers, D. V. (1978). toward an objective Evaluation Procedure for the Kinetic Family Drawings (K-F-D).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2, 358-365.
- O'Brien, R. P. & Patton, W. F. (1974). Development of an objective scoring method for the kinetic family drawing.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38, 156-164.
- O'Donnell, J. M. (2001). Paternal Involvement in Kinship Foster Care Services in One Father and Multiple Father Families. *Child Welfare*, 80(4), 453-479.
- Pilowsky, D. (1995). Psychopathology among children placed in family foster care. *Psychiatric Services*, 46, 906-910.

- Russell, P. L. (2002). *Attachment and grief in foster children*. Alliant International University, San Francisco Bay.
- Schatz, M. S. & T. P. Faust (1991). *Exploring attachment to primary care givers*. Doctoral Dissertations, Colorado State University.
- Sims, C. H. (1974). Kinetic family drawings and the family relations indicator.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0, 87-88.
- Smith, M. C. (1994). Child-rearing practices associated with better developmental outcomes in preschool-age foster children. *Child Study Journal*, 24, 299-327.
- Sroufe, L. A. (1983). Infant-caregiver attachment and patterns of adaptation in preschool: The roots of maladaptation and competence. In M. Perlmutter (Ed.).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16, 41-83.
- Stone, N. M. & S. F. Stone (1983). The predictions of successful foster placement. *The Journal of Contemporary Social Work*, 1, 11-17.
- Suess, G. J. (1987). *Consequences of early attachment experiences on competence in prescho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Rogensburg, Germany.
- Vuchinich, S., Ozretich, R. A., Pratt, C. C., & B. Kneedler (2002). Problem-Solving Communication in Foster Families and Birthfamilies. *Child Welfare*, 81(4), 571-594.
- Walsh, J. A. & Walsh, R. A. (1990). *Quality care for tough kids: Studies of the maintenance of subsidized foster placements in The Casey Family Program*. Washington, DC: Child Welfare League of America.
- Weinstein, L. (1965). Social schema of emotionally disturbed bo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0, 457-461.

1 차원고접수 : 2008. 06. 24.

수정원고접수 : 2008. 09. 02.

최종게재결정 : 2008. 09. 16.

Attachment Classification and Family-Perceptions in Foster Children

Kim, Yun-Mi

Sewon Infant Child
Counseling Center

Lee, Kyung-Sook

Hanshin University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Park, Jin-Ah

Hanshin Child & Parent
Counseling Center

Lee, Kune-Hee

Kyungi Foster Care Center

Jin, Mi-Kyoung

Namseoul University Department of Childwelfa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elp develop our understanding of foster children's mental and social characteristics through comparison with family-reared children.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60 children aged from five to eight: 30 of whom were in foster care arranged by the Family Foster Support Center in Gyeonggi Province and the other 30 were family-reared children living in Seoul or Gyeonggi Province. The Manchester Child Attachment Story Task (Green, Stanley, & Goldwyn, 2003) was used to measure attachment classifications. The Family Drawing Checklist(FDC)(Fury, 1996) was used to measure family perception. The comparison of attachment classifications between foster children and family-reared children found that foster children exhibited less secure attachments and more insecure classification than family-reared children.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secure and insecure attachment in terms of foster children's gender, foster style, foster period, and opportunities to meet with their biological parents. Regarding family perception, foster children had more negative conceptions about the notion of family than family-reared children. Male foster children showed more negative attitudes towards the notion of family than female foster children. Children who had a comparatively shorter foster period showed higher levels of negative feeling about family than children who had experienced a comparatively longer foster period. The comparison of family perception in terms of foster children's attachment classification revealed that children who exhibited secure attachments viewed the notion of family more positively, while children who exhibited insecure attachments perceived the notion of family more negatively.

Key words : Foster care, Foster Children, Attachment, Attachment classification, family-perception.